

케이프타운 호소문 (CAPE TOWN CALL TO ACTION)

A. 서문

2년에 걸친 민중건강운동의 계획과 노력 끝에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수만 명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800명이 우리의 운동과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우리는

연대를 강화하고 심화하였으며,

수많은 구조적, 사회정치적 불평등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세계적 건강 위기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표현했으며,

대안적인 경제·정치·사회 질서를 개발했으며,

우리가 구상하는 세계를 위해 활동할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우리는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과 쿠엥카선언(Cuenca Declaration)을 재확인했으며, 그것이 이 호소문의 기초가 되었다.

이 호소문이 4차 민중건강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우리 활동의 지침이 될 것이다.

B. 세계적 건강 위기

우리의 건강은 식량, 생태, 재정, 경제, 정치의 위기로 확인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건강 위기: 건강불평등의 심화

건강 위기의 토대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에 대한 간과에 있다. 이로 인해 식량주권의 파괴, 불충분한 소득, 그리고 물, 주택, 위생, 교육, 고용,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에의 공평한 접근성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다.

질병과 장애는 여러 방식으로 영속되고 있다. 담배, 술, 정크푸드의 확산, 대기오염, 대지오염, 수질오염, 대지와 여타 자연 자원의 식민지화, 토착민을 포함한 엄청난 수의 인구의 강제이주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농민들은 산업화된 북반구의 농업 기업으로부터 원조식량을 받고 혈값에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다.
- 토착민들은 그들의 땅을 광산 기업에 빼앗긴다.
- 노동자의 건강은 환경오염과 공해, 작업장에서의 안전장치 및 규제의 부재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 밀집된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양이 풍부한 천연재료보다 더 싸게 이용가능한 정크 푸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한편으로 여성의 건강은 모성 및 가족계획에 비해 평가절하되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와 성적 권리에 대해 다방면의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자율성과 개성, 존엄, 인권이 파괴되고 있다.
- 여성과 청소년의 산과적, 부인과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무시된다.
- 이민자와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외국인혐오증과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 어린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파괴됨으로써 어린이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수백만의 가족들이 가난과 다른 제도적 장벽에 의해 포괄적인 일차의료 및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 투여와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를 시장으로 대체하기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이 사유화되면서 거대 자본들(거대 제약자본, 거대 보험자본 및 바이오기술자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력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손쉽게 증가시킨다. 의료산업화는 환원주의, 산업화 모델, 생의학 모델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다자간, 양자간 무역 및 투자협정에 따라 출현하는 세계적인 무역 및 투자 체제는 기업과 사적인 금융기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가의 권한과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WTO-TRIPS 협정, 그리고 무역협정과 복제금지를 위한 협약 등을 통해 TRIPS+ 기준에 적응하도록 주변부 국가들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보편적인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하에서 작동하는 최소한의 보험 모델의 확산을 통해서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달성하려는 생각에 반대한다. 더 나쁜 것은 보편적인 건강보장이라는 개념이 공공의료기관을 해체하거나 약화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보편적인 의료 보장은 반드시 조직적이고 책임성 있는 높은 질의 공공적 공급과 병행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의 위기는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위기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기는 다음의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쇠퇴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건강 관련 산업
책임지지 않는 민간 기관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행사하는 부당한 영향력
체계적·구조적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선을 통해서 구조적 폭력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

자본주의의 위기

세계적인 건강의 위기는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이며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모델의 폐해가 세계화된 것이다. 건강의 위기는 정치, 식량, 경제, 재정, 생태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델은 1970년대 이윤율의 하락 및 자본 축적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술발전 및 외주화를 통해 생산 비용을 줄이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방했으며 물리적·지적 자산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소유권을 확대하였다.

신자유주의는 개발도상국에게 구조조정 프로그램, 무역협정 및 투자조약을 강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편입시켰다.

이 모델은 성장을 촉발하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정하고 비대칭적인 세계 경제의 통합, 비민주적인 세계적 거버넌스와 실물경제에서 벗어난 규제 받지 않는 금융자본의 극적인 팽창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믿음은 의심받아야 한다. 현재의 성장 기반 모델은 매우 불공정하며, 가난을 줄이고 민중의 생활상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데도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그것은 또한 이 세상에서 인간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한편, 현재 개발 및 원조 산업은 단지 현존하는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유지하고 재생산할 뿐이며,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치적 위기는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의사결정의 부재에서 기원한다. 세계화는 부자와 기업 엘리트들에게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실제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무너뜨렸다. 심지어 진보적 정부가 들어선 국가들에서도 민주주의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저항은 범죄로 규정되었다.

제국주의는 자원과 정치체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을 황폐화하는 군수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일국적, 세계적 차원 모두에서 정치양식과 정치기구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연대에 기초

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책임 있게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기심을 대신한 사회적 책임성,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기여
함께 안전해질 수 있으며, 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간안보와 집단안보
종교에 대한 관용
지배나 착취에 대한 거부, 연대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관계로서의 존중
자연과의 조화

재정 위기는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팽창하도록,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통화와 파생상품과 모기지예 과도하게 투기할 수 있도록 해준 규제완화에서 기원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점점 더 위험한 부채를 투자수단으로 창조했으며, 이것들은 정부, 연금기금과 세계 각지의 은행에 판매되었다. 2007년 미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금융 위기는 신속하게 세계화되었으며, 세계적 경기침체의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다. 정부들은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채를 발행해서 은행을 구제하고 국내 경제에 투자했다. 국가기관과 세계기관은 경제위기의 진행을 막는데 실패함으로써 금융 자본의 정치적 지배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금융 위기에 대한 국가기관과 국제기관의 대응은 위기를 초래한 기관과 금융시장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었을 뿐이다. 정부들은 신속하게 긴축재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지출의 감축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모델을 강화했으며, 금융자본가 계급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었다.

생태적 위기는 생태계의 수용능력에 부담을 주는 소수에 의한 추악한 과소비와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적 불평등의 증대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구에 의지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구는 망가지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의 자원은 파괴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유화되고 약탈당하고 있다. 부족한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지구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후보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강압적인 인구정책은 여성권을 침해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는 생태위기에 따른 부담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난한 국가에게 전가한다. 과잉생산과 과소비, 기후 변화의 영향은 대부분 원주민 공동체, 소농, 빈민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도 명백히 자본주의의 위기의 일부를 이룬다. 지구가 모든 인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생산과 소비 체계는 일정한 성장을 위한 필요라는 생명의 기본적 속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수십억의 사람들을 빈곤에 처하게 만든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온실가스 배출의 신속한 감축을 확보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했다. 탐욕적인 초민족적법인들의 지배 아래 협상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삼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이윤율 및 경제성장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여타의 시장적 유인과 같은 기만적 해결책을 도입하는 것에만 열을 올렸다.

식량 위기는 10억 명의 기아와 2억 명의 과체중 혹은 비만 환자의 존재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주권의 상실, 공동체와 저소득 국가의 그들 자신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서 비롯되는 더 크고 만연한 문제들의 징후가 드러난 것이다. 식량공급 체계는 초민족적 법인기업들(거대 농업기업과 거대 식량기업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이는 단종 작물 재배, 식품 작물의 바이오연료를 위한 작물로의 대체, 곡물의 투기적 거래의 극적인 증가, 불공정한 무역 협정, 식품 소매 부문의 과점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식량 위기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인 '토지 약탈'(land grabs)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초민족적 법인기업들과 국부펀드들이 가난한 지역 혹은 가난한 국가의 경작지 중 넓은 지역을 획득하여 국내의 식량 생산 시스템을 파괴하고 토착민을 쫓아내고 있다. 한편, 기아와 영양실조는 레디투유즈푸드(ready-to-use food: 영양분을 농축시킨 고형식품으로 영양실조의 치료에 사용)와 뉴트리슈티컬(nutriceuticals: '영양'과 '약품'의 합성어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의료적 효과를 주는 식품이나 식품성분을 의미)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낳고 있으며, 이는 종종 구호와 기술원조산업의 지원을 받는다.

C. 우리의 대안적인 비전

우리의 대안적인 비전은 이상적이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한다. 우리는 변혁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또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의 비전은 밀접하게 연관된 몇 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

- 새로운 경제학
- 새로운 경제체제
-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정치적·경제적 과정과 제도들
-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의 개혁
- 공평하고 공공적인 보건의료체계

우리에게는 돈의 액수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공평한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 그것은 생산량이나 수입의 최대화가 아니라 민중의 최대 이익(건강, 행복,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소득과 소비의 효용 또한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은 경제학적 의미에서 희소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진짜 희소한 것(자연자원과 자연의 수용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소비를 추구하면서 모두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공동체(국가) 내부와 공동체(국가) 사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제학은 시장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과소비는 지양하되 모든 개인은 풍요로워야 한다.

- 생태계에, 그리고 사람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적합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한다.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이며, 지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 불안정한 식량공급과 기아를 유발하는 현재의 세계적·지역적인 무역협정과 금융협정을 대체해야 한다.
- 지역사회와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세계적인 차원의 책임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노동자 관리 기업을 설립하고 육성해야 한다.
- 모두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면서 환경 또한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면서도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공식적 고용, 비공식적 고용, 물물교환, 자급자족의 경우를 막론하고)를 만들어야 한다.
-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 이미 발생한 토지 약탈을 되돌리고 책임있고 적절한 소유과 관리를 복원해야 한다.
- 건강지표, 사회지표, 환경지표에 바탕을 두고 사회 발전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건강, 행복, 인권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진정한 평등을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가치로 하며,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책임성, 투명성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시스템을 포함하는 **세계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자본이나 개인적 영향력에 의해 대의민주주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국내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참여 민주주의적 형태가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와 억압을 형성하는 조건이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적절한 헌법상의 권리와 헌법상의 보호에 의해 사람들이 보호받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부를 추구한다.

- 국제적인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정부
- 무력과 경제적 압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책과 이해를 다른 주권 국가에게 강요하지 않는 정부
- 사회적, 경제적 안전의 모든 측면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를 포함하여,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세계적, 국내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 완전하고 공평한 자원과 힘의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내부의, 국가들 간의 공정하고 누진적인 과세
- 효과적인 조세도피 봉쇄, 국제 은행체계의 민주적인 재구성 및 규제
- 공정한 무역협정
-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체계
- 인간과 생태계에 필수적인 발견들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지식의 공유와 관련한 새롭고 개방적인 체계의 형성을 추동하는, 지식과 기술의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새롭

고 개방적인 체계

특히 보건의료 관련 세계적 거버넌스에 있어서 우리는 기업과 무책임한 사적 행위자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일관성있고 책임있는 거버넌스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공공재원의 관리와 분배를 위한 새롭고 보다 책임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국제보건사업들과 기금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는 UN 기구들과 함께 혹은 UN 기구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 세계의 건강 문제 해결을 관장하고 조율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할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 국가들 간의 논의와 제한 없는 기여를 통하여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세계 모든 국가들과 민중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한다.

보건의료체계는 아래의 사항을 따라야만 한다

- 보편적이고 통합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하며,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 접근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성 인지적이며, 청소년에게 친화적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에 기초해야 하며, 민중의 건강에 대한 요구에 적절히 부합해야 한다.
- 성, 나이, 인종, 민족, 종교, 경제적 지위, 성적체성, 장애, 문화적 지식이나 언어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건강, 치료 체계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이해를 받아들여야 하며,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생의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승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이 적절하고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 인력의 국외 유출을 막고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 위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설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건설되어야 하며, 여타의 비영리적인 보건의료 공급자들 역시 상호 조정이 가능하면서 윤리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중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대중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생태학적 원칙 및 그 실천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분석틀을 계발해야 하고 공공보건에 종사하는 의사, 학자와 활동가들의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D.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호소문은 3차 민중건강총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자들과 그들의 동료인, 세계 곳곳의 건강권 운동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D1 민중에게 권력을; 운동의 건설

민중의 행동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치, 기업, 금융 엘리트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와야만 하며, 공공기관들이 책임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들이 투명하게 공공의 요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는 민중과 공동체들의 사회적·정치적 힘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3차 민중건강총회는 민중건강운동의 성장, 특히 아프리카에 민중건강운동의 새로운 지역모임이 건설된 것을 자축한다. 우리는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권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며, 정의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추구하는 다른 사회운동들과 많은 비슷한 목표들을 공유한다. 금융자본의 힘을 줄이고, 정부를 민주화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을 철폐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효과적이고 폭넓은 사회운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다른 운동 및 단체들과의 연대를 건설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민중건강운동은 현존하는 많은 운동들과의 연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운동들에는 비공식·공식 부문의 노동자들, 땅을 잃은 자들, 토착민, 여성, 청년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형 댐, 핵발전소, 불법 채광 등에 대항하는 이러한 투쟁들과 연대를 건설해야 하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사람들의 운동과도 연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환경 정의를 위한 운동과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적인 경제학자, 환경학자, 법률가, 도시설계사, 정치사회학자 등과 학문적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케이프타운을 떠나며 다음을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민중건강운동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민중건강운동을 건설할 것이다.

민중건강운동의 국가별 지역모임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를 더 강화, 확장, 심화시킬 것이다.

주제별 민중건강운동 그룹들을 더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케이프타운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건강권 운동 건설을 촉진할 국제적 운영위원회를 재개하고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위원회는 운동 내부의 소통을 향상시키고, 운동들 사이에 효과적인 결집을 촉진하고, 대륙별 지역모임과 국가별 모임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국가와 지역에서 민중건강운동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민중건강운동 자원활동가들을 채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향후 건강권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투쟁, 캠페인과 지역·국가·세계 수준의 여러 전선들에서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D2 대안적 비전과 분석 담론, 근거를 만들고 전파하기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교리, 부와 권력의 기득권이 주류매체를 통해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주류적 관점과 태도를 형성하고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의 대안이 없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주류매체와 기업광고의 힘을 알고 있다.

우리는 많은 과학 저널과 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이 현 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빈민들의 요구에 복무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와 평등 의제를 촉진하는 연구, 감시, 감독을 위한 투자가 부족함을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케이프타운을 떠나며 다음을 결의한다.

-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여, 특히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대안적 비전, 분석과 담론을 대중에게 전파할 것이다.
- <세계건강감시>(Global Health Watch)를 활용하여 세계의 건강 현황에 대한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세계의 건강과 관련한 현재의 제도적인 틀을 비판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건강감시>의 내용을 다른 언어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더욱 다양한 청자들을 향하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건강감시>(Health Watch)를 만들고 안정화할 것이다.
- 교육과 역량강화, 주체화의 수단으로서 국제민중건강대학(IPHU: International People's Health University)의 활동 영역을 확장시킬 것이다.
- 보건의료체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감시, 지역사회 중심 현장연구 등의 방법을 확산시킬 것이다.

D3 변화를 위한 조직화와 계획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전에 건설된 운동체와 대안적 연구들이 구체적인 캠페인과 기획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지역적, 일국적 행동은 지역적, 일국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조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국제적인 상황과 각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공유를 촉진한다.
- 중요한 국제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의 자료를 제공한다.
- 밀접한 쟁점에 관한 활동을 하는 각국의 단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고 조율한다.
- 경험의 공유를 위한 포럼들을 개최한다.
- 국제적인 수준에서 캠페인의 홍보를 지원한다.
- 국제 기구들과 북반구 국가들에 대한 요구를 촉진한다.
- 건강권을 위한 캠페인을 지원한다.

지역적 차원의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국제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들을 조정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각 캠페인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될 것이며, 각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이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포함한다.

- 세계적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민주화(Democratising Global Health)
- 세계보건기구
- 국제민중건강대학
- 세계건강감시

구체적인 캠페인들

과세 관련 캠페인, 사유화반대, 채광산업 관련, 건강권 체계 확립을 위한 대회, R&D 조약, 노동자 건강권과 특히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아동의 권리 및 정크푸드와 뉴트리슈티컬에 대한 반대, 인재 유출에 대한 배상, 공정하고 건강한 일자리

보이콧

이스라엘, 살인자 코카콜라 멈춰라

모금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사무국을 강화하고 정보와 매체, 국제적 수준에서의 지지 운동에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